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은행권 공동 ATM 설치

부안군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부안상설시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은행연합회가 금융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고차 국내 전통시장에 은행권 공동 ATM을 설치하기로 결정 후 강원도 삼척시 삼척중앙시장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공동 ATM 설치에는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디지털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ATM 운영 기기가수가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공동 ATM은 고객들에게 입·출금,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기존 거래 은행의 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YMCA ·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계약

정읍시는 지난 10일 청소년수련관의 수탁 기관으로 정읍기독교청년회(이사장 이장형, 이하 정읍YMCA)를 최종 선정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읍YMCA가 수탁자로 선정됐다.

정읍YMCA는 지난 2000년 수련관 개관 이후 출근 운영을 맡아오며 청소년 복지와 활동 지원에 기여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정읍YMCA는 기존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영장 공연장, 체육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평생 1인 1평 갯벌 소유’

부안군-군산대-월드비전-자연환경국민신탁, 부안 갯벌 보전 상호협력 협약

부안군과 군산대, 월드비전, 자연환경국민신탁은 11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안 갯벌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최연성 군산대 부총장,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이 ESG 행정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한평생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1인 1평 갯벌을 소유해 사유지 갯벌의 난개발을 저지하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의 중요



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행동 캠페인이다.

군은 협약에 따라 한평생 프로젝트 참여자 관리 및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며 군산대는 부안 갯벌의 탄소

흡수력 등 블루카본 관련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또 월드비전은 한평생 프로젝트 기

획·운영 및 참여자 모집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한평생 프로젝트 사업지 갯벌 보전·관리를 맡게 된다.

권익현 군수는 “한평생 프로젝트는 1인 1평씩 갯벌을 소유해 사유지 갯벌 난개발을 막고 관계인구를 만들어가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며 “협업기관과 기부자 1만명을 갯벌친구로 생각, 단순히 갯벌 소유에 그치지 않고 부안의 관계인구로서 참여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자발적 모금과 기부를 통해 자연환경자산을 확보한 후 민간 주도로 보전·관리하는 운동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자원순환 구축·탄소중립 실천할 것”

고창군, 3년 연속 전북자치도 ‘자원순환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업무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대업이다.

전북도에서는 매년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역점시책의 4개 부문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고창군은 14개 지표 중 8개 지표에 산집행, 분리배출 환경개선, 방치폐기물 관리, 위해 환경 개선, 영농폐기물 수거, 생활용품 재활용 촉진, 재활용품 제고 노력, 지도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8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강필구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쓰레기 발생 억제에 노력해주시는 결과”라며 “내년에도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운영자 간담회 개최

고창군이 11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자 52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 새롭게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업소당 80만원 상당의 하반기 인센티브 물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운영자들이 친절한 마인드와 따뜻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친절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하며 친절 뱃지 부착식과 친절 다짐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후 착한가격업소 운영 중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공유, 착한가

격업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업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 초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확대하기 위해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추천제를 시행하고 연간 130만원 정도로 인센티브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5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쌀 적정생산·타작물 재배로 안정화 도모

정읍시는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쌀 적정생산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농가 소득 보전에 나섰다.

시는 국비 20여원을 포함해 총 48여원을 투입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신규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시는 논콩·가루쌀 재배 활성화를 위해 21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 10개 경영체에는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2024년 쌀 적정생산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4535톤을 확보했으며,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1억

2400만원을 지원해 농가 소득 보장에 기여했다. 더불어 지자체 협력사업과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24억 4500만 원을 투입해 공 선별장 2개소를 신축해 농가의 오랜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 지역 내 콩 종합선별장이 없어 관외로 위탁했던 공 선별 작업은 유통비 증가와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왔다. 그러나 이번 선별장 신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2026~2027년 전라작물산업화사업(사업다자화) 국비 공모사업에서 36억원을 확보해 쌀 대체 작물로서 콩 재배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소통과 경청으로 군민과의 약속 실천

민선8기 제2기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부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이행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민선8기 제2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공약 이행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군민 26명으로 구성되며, 인구 비례에 따라 읍·면별, 성별 모집인원을 배정하고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되었다.



정읍시, 2년 연속 숲가꾸기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숲가꾸기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숲가꾸기 우수사례 발굴과 시·군 간 경쟁 유도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조림자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조림자가꾸기’는 조림 후 3년간 덩굴과 잡초 제거를 통해 조림목의 생장

을 돕는 사업이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5~10년간 병든 나무와 유해수종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나무들을 솜아베기와 가지치기를 통해 우량목 생육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읍산림조합과의 ‘숲가꾸기사업 관리업무대행’ 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림자가꾸기 65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큰나무가꾸기 40ha, 산물수집 40ha, 산불예방숲가꾸기 40ha, 공익림가꾸기 17ha 등 총 887ha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풀베기 적기 시행과 양호한 산물수집 등 세부적인 관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이 중 100만원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